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 관점에서 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김 남 진*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요 약》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의 필요에 의해 도입,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교사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실질적으로 특수아동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혹은 반영될 수 없었던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욕구 파악 및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들의 관점에서 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의 자질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달받고 있지 못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수 활동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과 담당 교사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수업 준비를 같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중 보수의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제주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로 이 두가지 방법을 병행, 비교하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도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003년 시범운영 그리고 2004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특수교

* 교신저자(i-namjin@hanmail.net)

육보조원제는 2005년 현재 3천 6백여 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현장에 배치시켜(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아동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보조원 활용은 특수아동들의 개인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가를 도출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필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배치·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의 필요에 의해 도입,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교사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실질적으로 특수아동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혹은 반영될 수 없었던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 후 이와 관련된 연구(강경숙·김용욱, 2004; 박미경·강경숙, 2004)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교사의 입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도 지난 3년간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경험이 있는 만큼 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의견을 제도에 일정 부분 반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에 일용직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고용되어 특수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시각을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실태와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고용자이면서 관리·감독자인 교사들의 입장과 상호비교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의 관리·감독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현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욕구 파악 및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보조원의 자격과 자질은 어떠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자격과 자질을 파악한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과 담당교사와의 협력정도를 알아본다.

넷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인식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크게 양적연구를 위한 대상과 질적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면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된 설문조사는 제주도내 유급특수교육보조원 34명 전체를 대상으로 배부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응답자 20명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1	5.0
	여	19	95.0
연령	20대	5	25.0
	30대	11	55.0
	40대	4	20.0
학력	고졸이하	2	10.0
	전문대 관련학과	7	35.0
	전문대 비관련학과	2	10.0
	4년제 관련학과	3	15.0
	4년제 비관련학과	6	30.0
경력	처음	7	35.0
	6개월 정도	4	20.0
	2학기 정도	5	25.0
	3학기 정도	3	15.0
	4학기 정도	1	5.0
배치 학급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8(초7, 중1)	40.0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3(초)	15.0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4(중)	20.0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모두	2(초)	10.0
	특수학교 유·초등부	2	10.0
	특수학교 중·고등부	1	5.0
전 체		20	100.0

또한 질적연구를 위한 면담은 학교급별과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통합교육환경을 고려하여 5명이 선정되었으며, 면담에 응한 보조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참여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성

성명	성별	연령	학 교	통합환경	학력/경력/활동사항
가00	여	39	A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 2005년 3월부터 특수교육보조원 활동
나00	여	37	B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졸업 2004년 3월부터 특수교육보조원 활동 원적학급(통합학급)에서 정해진 시간에 특수학급 입급 학생 지도
다00	여	23	C중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2005년 5월부터 특수교육보조원 활동 특수학급/원적학급에서 특수학급 입급 학생의 체육 과목 보조
라00	여	35	D중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졸업 2005년 6월부터 특수교육보조원 활동 별도의 공간에서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수학, 영어, 체육 과목 보조
마00	여	30	E특수학교	특수학교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 (현재 관련학과 재학중) 2005년 9월부터 특수교육보조원활동 모든 과목에 대해 보조

2. 연구도구

면접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특수교육보조원제도 관련 선행연구(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일, 2002, 2003; 강경숙 외, 2004; 박미경 외 200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우선적으로 문항을 작성 후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문항의 내용이 이중적으로 해석되거나 거의 일괄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 삭제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경변인을 포함한 전체 21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표 3> 참조),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시행서부터 현재까지 담당 교사는 물론 많은 부분 제기되고 있는 보조원의 역할, 교사 및 행정가와의 협력 정도, 보조원의 관리 문제, 보조원의 자질 그리고 보조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적 질문지를 준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3> 질문지의 구성

질문구성 요소	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배치 학급	I ~ V(5)
보조원의 역할	보조원의 업무규정 전달여부, 보조원의 역할, 교사 및 행정가와의 갈등	1~4(4)
교사, 행정가와의 협력	수업 전, 중, 후 활동 및 교사와의 협력 정도	5~12(8)
보조원의 관리	보조원의 관리	13(1)
보조원의 자질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보조원의 자질 정도간 차이	15(1)
보조원 제도의 개선 방안	만족도, 문제점	14, 16(2)
진 체		21문항

3. 연구절차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2005년 10월 초에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보조원들에게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수합된 설문지는 총 20부로 회수율은 58.8%에 이른다. 우선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적 질문지를 작성하여 2005년 11월 말에 특수교육보조원 5명과 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면담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장소에서 50여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면담 과정에서는 면담자의 양해를 얻어 기록과 녹취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4. 자료분석

전수조사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합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2.0을 이용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빈도와 평균의 차이를 구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은 빈도분석을 기초로 값을 파악하였으며 다음의 경우는 평균값을 파악하였다. 즉 특수교육보조원의 학교 업무는 1순위서부터 10점을 부여하여 마지막 순위에는 1점을주어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순위를 구하였다. 그리고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에 5점, ‘매우 불필요’는 1점으로 계산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면담 결과에 대한 자료 정리를 위하여 학교(A-초등학교, B-중학교, C-특수학교), 배치상황별(1-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2-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3-특수학교)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는 학교-배치상황-성명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자질

자격에 있어 우선 순위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학력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표 1> 참조). 고졸 이하의 학력은 2명에 그쳤으며 전문대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비관련학과 졸업이 30.0%로 다음이었다.

<표 4>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의 자질 인식 정도

(단위: 명, %)

내 용	미흡	보통	충분
장애의 원인,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이해	2 (10.0)	16 (80.0)	2 (10.0)
건강 및 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7 (36.8)	11 (57.9)	1 (5.3)
인간 발달(심리+운동+신체+정서+도덕성+지능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3 (15.0)	15 (75.0)	2 (10.0)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3 (15.8)	11 (57.9)	5 (26.3)
기초교과(읽기, 쓰기, 셈하기)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	15 (75.0)	5 (25.0)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3 (15.0)	12 (60.0)	5 (25.0)
교수-학습 지도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1 (5.3)	16 (84.2)	2 (10.5)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적 사무 처리에 대한 이해	8 (42.1)	11 (57.9)	-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작업+물리+심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6 (30.0)	12 (60.0)	2 (10.0)
특수아동에 대한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 정신	-	9 (45.0)	11 (55.0)
의사소통 기술 (학교의 교사, 학교직원, 부모와의 인간관계)	1 (5.3)	15 (78.9)	3 (15.8)

학력 그리고 관련 학과의 졸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현재 자신들의 자질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보조원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자질에는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적 사무처리에 대한 이

해’, ‘장애 보상 치료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건강 및 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등이 해당된다(<표 4> 참조).

이와 같은 양적조사 결과는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이 갖춰야될 자질로는)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애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해요.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는)반복적인걸 많이 요구해요. (애들은)똑같은 일을 가지고 항상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하다보면 저도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해야하고, 애들이 보채고 이러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해요.(B-2-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장애아에 대한 어떤 인식, 특수교육에 대해서 깊은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케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정신...돈보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B-1-라○○)

2.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특수교육보조원 당사자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대부분(N=11, 55.0%)이었으며,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45.0%(N=9)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명시되어 있는 업무 규정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자신이 전달받은 업무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다’(N=13, 65%)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표 5>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받았다는 경우도 채용을 위한 공문상에 제시되어 있던 것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로, 채용이 확정되고 나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장이나 담당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경우는 거의 없음이 면담 결과 드러났다.

<표 5>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역할전달과 준수 정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업무규정 전달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명확하지가 않다.	9	45.0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받았다.	11	55.0
	전체	20	100.0
업무규정 준수정도	보통이다.	6	30.0
	잘지켜지는 편이다.	13	65.0
	매우 잘 지켜진다.	1	5.0
	전체	20	100.0

공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공고로만 본 적 있어요. 특수학급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뭘 하라는 건지...(보조원으로 채용되고 나서)공고문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해마다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면 '해야될 것', '하지말아야될 것'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서명하고...2년을 그렇게 했거든요.(A-2-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은)없었는데요. 계약 당시 행정실장님이 계약서 읽어보라고...다음엔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잘 부탁한다고만...(B-1-라○○)

공고 내용 위주로 얘기해 주시던데요. 수업은 안된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수업에 들어가긴 하는데 체육시간만 들어가거든요. 다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원치않더라고요. 내가 체육선생인가(웃음)...(B-2-다○○)

저는 전달받은 바 없어요.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그전에 했던 보조원선생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약간 이야기해주니까 대략 알고 있을 뿐이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명확히 전달받은 것은 아니에요. ...공고문을 통해 학급에 배치되서 담임선생님을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알고 있고...학교에 들어와서 지내면서야 대략 무엇을 해야될지 알게됐어요.(C-3-마○○)

특수교육보조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순서대로 기록하게 한 문항의 결과를 평균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학생의 신변처리, 식사 등을 비롯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지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M=8.75), 다음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M=7.90), ‘수업을 보조하고,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등 교수-학습을 지원’(M=7.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팀의 한 구성원으로 교육계획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평균이 2.46으로 그 역할 비중이 가장 작았다.

<표 6> 특수교육보조원의 주된 업무

순위	업무내용	M	SD
1	학생의 신변처리, 식사 등을 비롯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지원	8.75	1.91
2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7.90	1.33
3	수업을 보조하고,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등 교수-학습을 지원	7.36	2.38
4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루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7.11	1.77
5	학생의 통학보조를 비롯한 이동을 지원	5.83	2.14
6	장애학생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	5.62	2.24
7	장애학생의 가족에게 학생의 진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족과 상호작용	5.05	1.95
8	휠체어나 보장구 등 보조 장비 사용 지원	4.23	3.00
9	학교나 교실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 지원	4.07	1.93
10	교육 팀의 한 구성원으로 교육계획에 참여	2.46	1.61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학생들의 신변처리 및 식사 보조 등과 같은 활동에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도 하지만 업무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교수활동을 어쩔 수 없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면담 결과 나타났다.

(통합학급에서 선생님들은)애들을 아예 맡기시는 경우가 많죠. 여러군데 교실을 가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애들하고 인사라도 해주시고 눈도 맞춰주고 혹시라도 손을 들면 발표할 기회도 주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안드시는가 봐요...특수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가 수업하게 되죠...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해버리니까...(일반학급에서의 특수아동 지도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좋죠. 신경도 안써주시고, 뭐를 하라고 지시해줄 만큼 우리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가.(A-2-나○○)

학생이 수학, 영어, 체육시간에 내려오더라고요. 특수교육선생님이 목요일과 금요일 5, 6교시에 오셔서 중 2인데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가르치세요. 곱셈, 나눗셈 그리고 기탄국어같은 것으로. 선생님이 가시고 다음에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습을 시켜줘요. 선생님이 영어는 안가르치세요. 영어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정을 인터넷 야후 꾸러기를 이용해서 가르쳐요. 막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아예 안가르치면 안될 것 같고...체육시간은 저랑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요. 순회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옆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학생 가르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요.(B-1-라○○)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보조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보조교사라고해도 될 텐데...선생님들은 보조원으로 알고 있으나, 수업시간엔 전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맡겨서 중증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맡기는데 그럼 교사라고 할 수 있죠.(C-3-마○○)

위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주된 업무와 관련해서 특수교육보조원과 교사 그리고 행정가, 학부모와의 의견 차이는 없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열 가지 항목 중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반응한 업무는 네 요인에 그쳤다. <표 7>을 통해 불일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나 교실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 지원’, ‘수업을 보조하고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등 교수-학습을 지원’, ‘교육 팀의 한 구성원으로 교육계획에 참여’, ‘장애학생의 가족에게 학생의 진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족과 상호작용’ 등이 불일치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표 7> 특수교육보조원과 교사, 행정가, 학부모와의 의견 차이

(단위: 명, %)

내 용	불일치	보통	일치
① 학교나 교실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 지원	1 (7.1)	7 (50.0)	6 (42.9)
② 학생의 신변처리, 식사 등을 비롯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지원	-	6 (30.0)	14 (70.0)
③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	6 (30.0)	14 (70.0)
④ 학생의 통학보조를 비롯한 이동을 지원	-	4 (23.5)	13 (76.5)
⑤ 휠체어나 보장구 등 보조 장비 사용 지원	-	3 (27.3)	8 (72.7)
⑥ 장애학생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	-	4 (22.2)	14 (77.8)
⑦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루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4 (20.0)	16 (80.0)
⑧ 수업을 보조하고,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등 교수-학습을 지원	1 5.0	9 (45.0)	10 (50.0)
⑨ 교육 팀의 한 구성원으로 교육계획에 참여	1 7.7	7 (53.8)	5 (38.5)
⑩ 장애학생의 가족에게 학생의 진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족과 상호작용	1 5.0	11 (55.0)	8 (40.0)

면담 결과 업무상의 이유로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와는 거의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갈등이 생기지 않지만, 부모들과의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은 특수교육보조원제도 혹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홍보되지 않은데 있었다.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아들이나 딸의 전담교사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나 담임선생님께서 보조원이 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분도 없고... 담임선생님은 수업이 많다보니 애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못쓰잖아요. 대신에 제가 거의 하루 종일 교실에 있다보면 (부모님들은) 애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저한테 돌려요.(C-3-마○○)

(부모님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인 저를) 애들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너무 많은 부탁을 하세요.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도와 주시기로 신청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한다고 하신 만큼 많이 맡아주시 말라”고 담임선생님께서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전화주셔서 오늘 일이 바빠서 학교 못가니 버스 태워달라고 하기도 하세요... 특수학급에 있는 담당선생님은 어려워하면서 저는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B-2-다○○)

부모님들 역시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요구하실때 보면 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 만큼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가 안됐다 싶으면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달도 하고... 일단은 제가 편하니까, 저를 많이 찾으세요...(A-2-나 00)

3. 특수교육보조원과 담당교사와의 협력

<표 8>은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교실에 같이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담당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과의 협력 정도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담당교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참가하거나(45.0%), 담당교사에게 물어본 후 필요하다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50.0%)하는 등 교실 안에서의 활동을 거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였다.

<표 8>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실수업 참여

구 분	빈도(명)	퍼센트(%)
담당교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참가한다.	9	45.0
담당교사에게 물어본 후 필요하다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한다.	10	50.0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	5.0
전체	20	100.0

<표 9> 수업시간시 특수교육보조원의 주된 활동

구 분	빈도(명)	퍼센트(%)
특별히 정해진 역할이 없는 관계로 교사의 지시에 한하여 활동한다.	3	15.0
교사의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장애학생 옆에서 학습과정 전반을 보조한다.	12	60.0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3	15.0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돌본다.	2	10.0
전체	20	100.0

그리고 수업시간에 교사와 같이 참여하는 경우, 교사의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장애학생 옆에서 학습과정 전반을 보조(N=12, 60.0%)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돌보는 경우(N=2, 10.0%)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수업시간에는 담당교사가 보조원을 의식하는 눈에 띄는 언행을 하지 않아서 보조원들

이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N=12, 60.0%), 교사가 실질적으로 보조원이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한다고 답한 경우는 25.0%(N=5)로 초등학교 3명(25.0%), 중학교 1명(20.0%), 특수학교 1명(33.3%)에 그쳤다.

교사들이 일반교사와 보조원간의 협력, 특수교사와 보조교사와의 협력 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강경숙 외, 2004)과는 달리 설문에 응했던 많은 보조원들은 비정기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며 담당교사와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45.0%)이라고 답했다(<표 10> 참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모임도 없으며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는 1명(5.0%)에 그쳤다.

<표 10> 담당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과의 협력 정도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도 없으며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저 그렇다.	1	5.0
비정기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며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9	45.0
정기적인 모임(회의)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	10.0
전체	20	100.0

그러나 담당교사 혹은 과목 교사들과의 협력 정도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목적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급에 들어가서 특수학급 애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급에 있는 혹은 과목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각 과목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봤나봐요. 원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보조원이 들어가서 도와준다고. 그런데 원하시는 선생님이 아무도 안계셔서...직업교과와 같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애들을 봐줘도 될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B-2-다○○)

수업준비를 같이 한적은 없어요...선생님들은 애들 능력을 모르세요. 학생이 소리를 내서 표현을 할 줄 알면 “이것도 아네”하는데, 조용한 학생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 다루듯이 해버려요. 그건 아닌데...통합했을때 일반학급에 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데 그 교실에 갔을 때 우리 애들에게 맞는 자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는 해요.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다행히도 수업 내용과 애의 수준이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애들은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우리 애들이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손을 들어도 시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손만 들다 말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애들도 좋고 일반 애들도 좋고 할텐데...(A-2-나○○)

아이의 발달 상황 등에 대해서는 특수선생님(순회교사)하고만 이야기해요. 담임선생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잘 부탁한다고만 하시지 서로 이야기는 잘 안해요...저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보조원으로 왔지만 터치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보조

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영역을 침범하거나 침범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B-1-라○○)

교실에 계속 있다보니 저는 나름대로 학생들에 대해 과목 선생님들 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준비물이 그 학생에게는 부적절한데 그런 자료를 갖고 수업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좀...(C-3-마○○)

4.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개선 방안

<표 11>은 현재의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현행 제도가 교사로서의 자격 부여 등 더 나은 지위로의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4.63). 그리고 연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교수 기술을 증진(M=4.30)하는 것에 대한 바램이 다음이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개선(M=3.90)할 필요성 등의 순이었다.

<표 11>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개선 사항

순위	내 용	M	SD
1	더 나은 지위로의 향상 기회 제공(교사로서의 자격 부여)	4.63	.95
2	연수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장애 이해 및 교수 기술 증진	4.30	.65
3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장애학생, 일반학생들의 낮은 인식 수준 개선	3.90	1.02
4	교사와의 역할 경계의 명확한 규정	3.64	1.10
5	교사의 개인적 특성(담당교사와의 성별, 나이,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문제 해결	3.47	.90

먼담을 통해 파악된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호칭의 문제, 보수의 개선, 신분 보장,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 역할의 확대 등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호칭과 관련하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호칭을 ‘특수교육보조교사’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선)보조선생님이라고 하죠. 원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원, 보조원하니까 그래서 보조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요...(호칭을) 바꿔주면 좋죠. 과학보조선생님들한테는 과학보조선생님이라고 알아시키고 그냥 과학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특수교육보조원들한테는 보조선생님이라고 꼭 ‘보조’자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애들은 이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은 중간 선생님이고 그렇게 파악한다는거예요.(A-2-나○○)

둘째는 현행 보수 체계의 개선과 관련한 문제이다. 특히 방학 중에는 보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하루만 결근을 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빠진

다는 것을 주로 언급하였다.

방학때는 지금 보수의 반만이라도 나왔으면...(B-2-다○○)

방학때 보수가 나오지 않은 것이 힘들어요. (보수가)오르면 좋죠. 떨어지지만 않더라도...(A-2-나○○)

일급이 너무 오르는 것도 반대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하루 28,850원의 일당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학이 되면 집의 애들도 봐야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휴가같은 것을 써버리면 하루에 3만원에서 9만원이 빠지게 되는게 부담되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일년에 5회 정도 만이라도 휴가가 보장되었음 좋겠어요. 끝따라 가도 하루 3만원은 주잖아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보조원 선생님들은 더 쥐야해요. 보수에 차등을 뒀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힘든 학생들만 딱 받으니까 더 쥐야해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애들 힘은 얼마나 써요...(B-1-라○○)

보조원의 경우 하루를 쉬게되면, 한달 보수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하루 빠진 것 갖고도...교통비하다보면 얼마되지 않아요. 보수는 현재 80만원 수준 받는데, 한 100만원은 돼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가?(웃음)(C-3-마○○)

보수적인 면이 조금은 아쉬워요.(A-1-가○○)

셋째, 신분 보장의 문제이다.

아는 보조원선생님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음 학기에도 보조원을 할 것이라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원을 쓸 것인지 공익요원을 쓸 것인지(하는 문제로 불안케하는...). 학기 초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봐요. 저희 학교야 당연히 저를 쓰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의하면 자기가 옆에서 듣고 있었음에도 다른 보조원으로 대체한다고 부담을 주신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학교측과) 특수아동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편찮지 않나하는 의견을 주고 받았나 봐요...힘을 쓸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언짢다고 전화가 왔었어요.(A-2-나○○)

일용직이라는...직업에 대한...이것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내년엔 일급도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경쟁률이 오르잖아요. 그럼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힘들어요. 내년, 내후년에는 학생이 안오면 하지 못해요. 소속이 어딘가하는 것도...관리를 안해줘요.(B-1-라○○)

넷째, 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연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에 특수학교에서 받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학교에서 대할 수 없는 특수아동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실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A-1-가○○)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아요. 우선은 모든 장애 영역에 걸쳐하고, 다음에는 해당 영역별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B-2-다○○)

다양한 내용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는 연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마땅히

몰어볼 데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기는 상관없고요.(A-2-나○○)

일단은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장애아들에 대한 인식을, 특수 교육에 대해서 깊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아예 모르는 것 보다는...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론은 해야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특수 교육에 대해 모르니까...특수학교같은데 가서 애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고..중학교 수준에서는 간단한 직업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험에 비춰보니 심화연수의 차별성이 없더라고요. 선생님들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 나눠서 이런 좋았지만...옆에서 보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B-1-라○○)

보조원으로 있으려면 당연히 연수는 있어야죠.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장애별로 선택해서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체는 지체만, 정서는 정서만, 장애별로...이론적인 것만 말고 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제가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은 개인차가 심해서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전에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학생들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대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면 더 쉽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업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공을 주시면서 수업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왜 이것 해야하는지 몰랐던 적이 있어요.(C-3-마○○)

그리고 면접 중에 연수의 내용과는 별개로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면담에 응한 보조원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9월달에 심화연수라고 받았거든요. (심화연수는) 그 전에 했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선생님들 다 오셨던데요. 저말고 저처럼 늦게 들어간 분들도, 저는 저말고 그 이전의 선생님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요. 60시간(직무연수)요? 어디서요?...이론과 실무교육 안받았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도 올 5월달에 들어왔는데 심화연수 받았거든요. 작년에 했던 선생님들과 비교해보면 딱 한 분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한 6개월 정도하고 꽤 많은 직장있으면 가버리고...(6일간 있었던 심화연수는)말이 연수고...강의 같은 것은 없었고...그냥 애들 보다오는 거죠.(B-1-라○○)

마지막으로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수업에 대한 권한 부여에 많은 무게를 실고 있었다.

...저는 체육시간에만 들어가서 애들 봐주죠. 11명이거든요. 체육시간만 들어가도...체육시간에 담당 선생님은 전적으로 특수학급 학생을 저에게 의탁(?)하세요...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입급 아동들을 지도하는데는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B-2-다○○)

특수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가 수업하는게 되죠...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해버리니까...(일반학급에서의 특수아동 지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좋죠. 신경도 안써주시고, 뭐를 하라고 지시해줄 만큼 우리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해야 하는까.(A-2-나○○)

학교에서 허락해 준다면 (원적학급의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도 수업을 하고

싫어요. 저가 가르치는 학생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인지체 2급이다보니 중학교 수준은 못가르쳐요.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저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해서는 수업을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B-1-라○○)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당사자인 특수교육보조원의 관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5명과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각 학교급별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 및 연령 등 자격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시 될 수 있는 바는 채용이 확정된 특수교육보조원들에 대한 관리의 문제였다. 특수교육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우, 60시간의 직무 연수없이도 현장에 배치·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신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시간의 심화과정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직무연수와 심화연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체되더라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직무연수를 받고나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배치 후 바로 교사의 교수 및 학생의 학습 활동을 보조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 기관에 보조원을 배치할 경우, 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학교에서 보조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강경숙 외, 2002)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경기도여주교육청, 2005)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특수교육보조원 자격과 관련해서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연령이나 선정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상남도교육청(2005)의 경우는 연령이나 자격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해 전

라북도교육청(2005)의 경우는 연령을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하는가 하면 자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보조원의 자질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 정신이며 다음은 인간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등의 순이었다(강경숙 외, 2002).

제주도의 각 학교별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으로 하며 연령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지원과 채용에 있어 우선 순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우선 순위별 자격을 살펴보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1순위로 하고 있으며 다음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자, 특수교육보조원 경험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주로 학생의 신변처리, 식사 등을 비롯한 학생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공문상에 표기되어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은 교사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지만(박미경 외, 2004), 특수교육보조원들 역시 역할의 불명확함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전달 과정에서 공문상에 제시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과 함께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한다는 것과 정규교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인육구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2005)의 경우는 이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에 따른 활동과 방과후 및 방학 기간 등에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의 수행도 역할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여주교육청(2005)은 공문서 처리 등 교사의 고유 업무, 서무업무 보조 등 행정 업무, 차 심부름, 화단 관리 등의 학교 전체적인 잡무 등은 특수교육보조원에게 부과해서는 안되는 업무로 명확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실시된 요구조사에 의하면(강경숙 외, 2002), 보조원의 역할은 개인적 육구지원, 교수-학습적 지원,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지원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보조원들은 학생의 신변처리, 식사 등을 비롯한 학생의 요구사항 지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수업을 보조하고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등의 교수-학습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범주를 정하고, 이에 맞춰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하는 학교별로 통합교육 환경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특수교육보조원에 전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후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장애학생 옆에서 학습과정 전반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과 각 과목별 교사는 물론 담임교사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의 학습과정 전반을 보조한다함은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협력에 의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수활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수교육보조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 환경상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하루 종일 관찰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들에게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업활동을 위한 자료의 제작에 있어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반면에 교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교실에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경우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특수교육보조원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교사와 보조원간의 연령 차이는 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는 보조원을 교실 밖에 있게하고, 장애학생이 용변 실수를 하거나, 문제행동을 했을 때만 교실 밖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외, 2004).

이와 같은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불편한 관계의 개선 및 욕구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보육 혹은 교사들의 수고스러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협력에 대하여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공동으로 하는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교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가진 문제점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은 더 나은 지위로의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호칭의 문제, 보수의 개선, 신분보장,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 그리고 현실에 맞는 역할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2. 결 론

연구의 기본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

수교육보조원으로서의 자질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달받고 있지 못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수활동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과 담당교사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수업 준비를 같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중 방학중 보수 지급 등과 같은 사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담당교사와의 협력, 특수교육보조원의 처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 제한적인 인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연구결과가 될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을 일반화시켜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설문조사의 결과가 면접조사와는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보다 구체적인 면접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일(2003). 특수교육보조원제 요구 분석 및 운영 방안. 2003년도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19-45.
- 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일(2002).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강경숙·김용욱(2004). 특수교육보조원의 실태 및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 **특수교육연구**, 11(2), 131-155.
- 경기도여주교육청 <http://www.yojued.go.kr/>
-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박미경·강경숙(2004).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9(3), 73-94.
- 전라북도교육청 <http://www.jbe.go.kr/>
- 전인진, 박승희(2001). 보조교사의 역할 규명과 순기능 및 역기능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36(3), 233-265.
- 제주도교육청 <http://www.jje.go.kr/>

Actuality and Problemes for Paraprofessional System from Viewpoint of Jeju Area's Paraprofessionals

Kim, Nam-Jin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ity and problemes of paraprofessional system by paraprofessionals perspect in Jeju area. The results which actuality and problemes of paraprofession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qualification which it is providing in current paraprofessional system, there is not a big problem. and most being necessary with the temperament as the paraprofessionals appeared that it is understanding for disabilities.

Second, the roles of the paraprofessional are not delivered concretely. And the professor activity with the special education student of the paraprofessional is coming many portion in spite of actuality is forbidden.

Third, the cooperation with the paraprofessional and the charge teacher is not become accomplished almost.

Fourth, in vacation, paraprofessionals were not received pays, and this is the most urgent problem must be solved with the paraprofessional system.

This research has a limit that it saw the specific area which is Jeju, so next researches should be widen the scope of area. And next researches process together the quantitative and quality research for right result.

key words : paraprofessional, paraprofessional system